

## 2018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치고

일 시 : 2018년 4월 4일(수) ~ 6일(금)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 DCC)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와야 했던 2018년 4월 4~6일,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사흘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년에는 동 기간에 화창한 날씨와 만개한 벚꽃으로 봄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 봄바라고하기에 다소 차가운 빗물로 활발한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으나, 예년과 유사한 2,02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발표논문 편수는 기초강연, 수상기념강연을 포함 초청강연 117편, 구두발표 67편, 포스터 952편 등 총 1,136편이 발표되어, 예년보다 활발하게 학술대회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업홍보부스도 총 42업체 43부스로 점점더 발전해 가는 고분자학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가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본 글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선 201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고분자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고, 학문과 산업계에 큰 공헌을 하신 회원님들에게 다수의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LG화학고분자학술상에 아주대학교 박기동 교수, 한화고분자학술상에 고려대학교 김환규 교수, 중견학술상에 한양대학교 이동운 교수, 영남대학교 이승우 교수, 신진학술상에 (주)시지바이오 박준규 박사, 국민대학교 정인환 교수, 기술상에 두산전자BG 권정돈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고분자 과학계의 미래를 책임질 회원들에게 우수학위논문상이 수여되었으며, 올해는 박사학위논문상으로 전북대학교 김대운 회원, UNIST 이은광 회원, KAIST 차운정 회원이, 석사학위논문상으로 부경대학교 김윤환 회원, 중앙대학교 정해중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춘계학술대회의 발표자에 대한 시상으로는 우수논문상에 영문구두발표 8명, 국문구두발표 8명, 포스터발표 12명에게 우수논문발표상이 총회 후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수여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 회장단과 여러 고문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활발히 참여해 주신 가운데, 학술적, 인간적으로도 즐거운 교류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고분자학회 교류의 일환으로 참석해 주신 일본 젊은 고분자 과학자 분들의 소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베트남에서 참여해 주신 고분자 과학자 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등 뜻깊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국내 고분자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길 바라는 고문님의 축사는 인상 깊었습니다.

금번 춘계학술대회의 첫날 평의원회의에서 특별강연으로 화학연구원의 최길영 박사님께서 “고분자소재의 실용화기술개발 발자취와 과제-한국화학연구원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국내 고분자 과학의 역사에 대한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분자학회와 한국고분자과학이 존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여러 선임 과학자 분들을 기념하고, 역사로부터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많은 회원님들의 포스터 발표와 활발한 학술교류로 2018년도 춘계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리며, 한양대학교 강용수 교수님께서 “Polymer Electrolytes for Sensitized Solar Cells in the Solid State”의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암고분자상 수상 기념으로 포항공대 조길원 교수님께서 “Interface Engineering for Organic Electronics”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학회 및 학술위원회의 노력과 각계의 회원님들의 활발한 참여로, 올해도 다양한 주제 아래 총 아홉 개의 회장에서 초청강연과 구두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월 5일 목요일에는 분자전자부문위원회 (I),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 (I), Polymer Synthesis, 고분자가공/복합재료, Korea-Japan Joint Symposium-smart Interface by Functional Polymers, DNA/Protein/Peptide 거대 분자체 조립: 원리 및 응용, 고분자 이론 및 시뮬레이션, 대학원생 영어발표, 대학원생 구두발표 등 아홉 개의 회장에서 발표 및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월 6일 금요일에는 분자전자 부문위원회 (II), Biomedical Polymers Division (II), Polymer Structures and Properties,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탄소나노물질 기반 에너지 변환 및 저장기술, Photopolymers/Photoresponsive Systems, 기능성 고분자, 대학원생 영어발표 및 국문발표 등 총 9개 회장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회장에서의 수준 높은 발표와 열띤 토론은 국내 고분자과학계의 높은 현 수준과, 더 높은 곳을 향한 밝은 미래를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수의 대학원생 회원의 발표 신청이 있었으며, 후학들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써 고분자학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저가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더불어 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금번 연구발표회에서도 다양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목요일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비롯하여, 의료용 고분자 부문위원회에서도 영어 발표가 개최되었고, 고분자 합성 및 고분자 구조/물성 세션에서 목, 금에 각각 롯데케미칼, 두산 국제화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생들의 “Graduate Student Oral Session I, II” 세션에서 총 30명의 영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에서 총 8명의 신진연구자의 최신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고, 최신 학문 분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DNA/Protein/Peptide 거대분자체 조립” 세션 및 “Photopolymers/Photoresponsive Systems”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고분자 과학과 융합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 및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탄소나노물질 기반 에너지 변환 및 저장기술 세션도 마련되어, 탄소물질과의 융복합 응용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보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던 목요일 오전 포스터 세션을 포함하여, 수요일 오전과 오후 총 3회에 걸친 포스터 세션에서는 총 95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술위원회의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포스터 발표 12개를 선정하여 우수논문 발표상(포스터 부문)을 시상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발표(No Show) 및 부차시간 미준수가 있었습니다만, 학회에서 미발표(No Show) 및 부차시간 미준수 해당 발표자 및 지도교수에게 학회 종로 후 즉시 이메일 등을 통하여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앞으로 미발표(No Show) 및 부차시간 미준수 발표자가 계속 줄어들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회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제공된 맛있는 빵과 바리스타가 직접 서비스하는 커피로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학회장에서 학술교류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기간동안 총 42개업체 43개 기기전시 및 기업홍보부스가 설치 및 운영되었습니다. 학회에서는 기기전시 및 기업홍보부스에 많은 회원들이 방문하고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품추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기전시 부스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기기전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여전히 학생회원들의 큰 관심인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한 기업홍보부스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조금 더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기전시업체의 부스 운영은 학술대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학술대회를 유지시키는 한 축이므로, 여러 회원들께서 학술대회 기간 동안 기기전시 부스에 더욱 많은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지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대미를 장식할 기업 홍보부스와 연계된 경품 추첨이 마지막날 포스터 발표 이후에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 50명은 사전 추첨을 통하여 스크린에 공지하였고, 4등부터 본격적인 추첨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품 추첨의 뜨거운 열기는 아래 사진(하단 제일 우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회의 즐거운 행사로 자리잡게 됨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상으로 학회에서 제공한 아이패드 1대를 마지막에 추첨하여 많은 학생들의 환호와 탄성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으로는 마지막에 추첨한 아이패드 1대를 포함하여 1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의 행운이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하여 경직될 수 있을 것 같은 학술대회만이 아닌, 학생들에게 즐겁고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학술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학술대회의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경품준비와 이벤트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2018년 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주요 학회와 일정이 겹침에도 금번 고분자학회를 위하여 피곤함을 무릅쓰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고분자 연구 분야에서 학술발표의 기회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학술위원회 위원들과 각 부문 및 세션의 조직책임자들, 그리고 발표가 잘 진행되도록 각 회장을 담당하신 운영이사분들과 발표회 좌장 직분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고분자학회 학술대회를 위하여 참가해주신 모든 기업홍보부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고분자학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항상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는 김철희 회장님, 차국현 수석부회장님과 학회 임원 여러분들, 평의원회의 및 총회의 사회와 학술대회 총괄업무를 맡아주신 김윤희 전무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기간 중 진행을 위하여 모든 방면으로 애써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 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도 큰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우수한 연구논문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각 발표회장에서 청정해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주시는 모든 회원들 덕분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모든 회원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이사 이경진(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